이우환 다시 읽기 #2

2011 / 11 / 29

PEOPLE

ART IN CULTURE

<<

>>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

글 | 김복기

2010년 6월 15일 이우환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안도 타다오가 설계를 맡았다. 미술관 입구에는 자연석과 철판을 설치한 이우환의 작품 〈관계항〉이 바다를 향해 놓여 있다. 미술관 앞마당에는 높이 18m의 육각형 콘크리트 봉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다. 이 봉을 설치한 것은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에 공간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이우환의 발상이었다. 입구까지는 좁고 긴 통로를 거쳐야 했다. 내부는 한마디로 동굴 같은 느낌이었다. 미술관은 '만남의 방' '침묵의 방' '그림자의 방' '명상의 방'으로 나뉘어, 이우환의 예술 세계를 압축하는 회화와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만남의 방'은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등 평면 작품 중심으로 꾸몄고, '침묵의 방'과 '그림자의 방'은 자연석과 철판으로 이뤄진 설치작품 중심이다. 마지막 '명상의 방'은 회화 〈조응〉이 벽면에 그려져 있다. 이 방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나오시마 섬에 위치한 이우환 미술관 입구



이우환 미술관 전경. 앞·<관계항-대화> 가운데·<관계항-점선면> 2010



왼쪽·그림자의 방 <관계항-돌의 그림자> 오른쪽·미술관 외부 통로



침묵의 방 <관계항-침묵> 2010



만남의 방 전시 전경



명상의 방 <대화>